

## 성별 격차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ender Gap on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and Economic Growth

Sangyoon Kim<sup>a,1</sup>, Jonggook Seo<sup>a,\*</sup>

<sup>a</sup> Department of Urba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12-1 Songdo-dong, Incheon 22012, Republic of Korea

### ABSTRACT

Based o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by World Economic Forum, this study identified factors of gender gap and analyzed a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wth and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with 145 countries. Consequently, sex rati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NI growth rate and ICT development index. Female illiterac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only GNI growth rate, and female seat of parliamen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ly with only GNI growth rate.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ly ICT development index. These result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future female labor force. With these results, many countries will need to reconsi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stablish strategy based on an institution and a policy to prepar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KEYWORDS

gender gap  
gender inequality  
economic growth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 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젠더 갭  
성별 격차  
소득 성장  
경제구조 고도화  
4차 산업혁명

© 2017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Corresponding author. Tel. 82-32-835-8741. Email. [jgseo@inu.ac.kr](mailto:jgseo@inu.ac.kr)

1 Tel. 82-32-835-4418. Email. [numlock@inu.ac.kr](mailto:numlock@inu.ac.kr)

### ARTICLE HISTORY

Received Oct. 23, 2017

Revised Oct. 23, 2017

Accepted Dec. 11, 2017

## 1. 서론

증기기관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는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를 통한 대량생산이 대중화된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컴퓨터 자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 시점은 생명공학, 로봇기술, 인공지능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현상이 먼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명칭을 붙인 것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은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구현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일어날 현상에 대해 미리 명칭을 붙인 것에서 그 특이성과 중요성을 지닌다. 각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연구 및 지출을 하는 등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많은 일자리를 주도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 때문에 향후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역시 존재한다. 특히 비정규직 혹은 저숙련 업종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노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여성 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2015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조사 기관들은 국가별로 여성의 지위, 차별 정도 등을 나타내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140여개 국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참여기회, 학업 성취도, 건강·보건, 정치적 권한 등의 하위지수를 설정한 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젠더 갭 지수(GGI)를 발표한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는 145개 국가를 대륙별, 소득별로 그룹을 다시 나누어 순위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젠더 갭 지수 상위 20개 국가 중 15개 국가(2)가 소득집단으로 보면 상위그룹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젠더 갭 요소들이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 젠더 갭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Knoema를 통해 145개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밖에 국제전기통신연합, Human Development report, World Bank, WHO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45개 국가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인 2010년과 비교년도인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 2.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성(性)이나 섹스(sex)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신체적이며 유전학적인 용어이다. 이에 비해 젠더(gender)란 사회적인 환경과 훈련에 의해 남녀의 기질이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 여성학 용어이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속성 이외에 사회적 속성에 의해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박혜진, 2012). 세계보건기구(WHO)는 젠더란 규범, 역할, 관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여성과 남성 사이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Merriam-Webster 사전에 의하면 젠더는 어느 한 성(性)과 관련된 전형적인 행동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그의 저서 『제2의 성(1949)』에서 “한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여권(女權)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생물학적 속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속성에 의해 성 정체성이 길들여지고 차별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동안의 페미니즘 운동과 기타 노력으로 인해 사회에서 젠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고, 젠더학이라는 학문 분야까지 생겨 사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젠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성별 격차 또는 차이 등으로 불리는 젠더 갭(Gender Gap)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ikigender는 젠더 갭을 성별간의 불균형한 차이(disproportionate difference) 혹은 불일치(disparity)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학과 과학에서의 남녀 학생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의 결과라는 것이다. Macmillan 사전에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남성과

1)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남녀 간의 차이(gap)가 적다는 뜻이고 상위랭킹에 해당된다.

2)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벨기에, 라트비아

여성 사이의 차이로 정의하고, Collins 사전에서는 젠더 갭을 가치, 행동, 투표 패턴 등에서 남녀 간의 명백한 차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차별의 의미보다는 단순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Oxford 사전에서는 남녀 사이의 젠더 갭이 기회, 지위, 행동 등의 불일치라고 정의하고 있어 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정의를 가지는 젠더 갭은 현실적으로 정치참여, 노동시장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존재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물론 능력 차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김영미(2011)는 여성들을 광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생활세계와 밀접한 의제와 함께,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형식적 젠더평등'과 '실질적 젠더불평등'간의 괴리였다고 말한다. 또한,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앞설지 모를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내에서는 채용, 승진, 임금 상의 차별을 받고 있고, 가정 내에서는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

이렇듯 남녀 간의 부당한 차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의 사회 관념으로 인해 형성되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의 관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이를 개선하는 데에 결코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으며,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부당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 분야에서 젠더 갭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우(1956)가 제시한 솔로우 모형(Solow Model)에서는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을 많이 축적한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을 누린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로머(1986)와 루카스(1988)가 제시한 내생적성장 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은 지식과 인적자본을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지식과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과 빠른 성장을 보인다는 것이다. 신성장이론(New Growth Theory)을 제시한 로머는 그의 연구(1992, 1993)에서 아이디어와 연구를 중시한다. 즉, 연구부문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높은 생활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의 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면 Hamid Yeganeh·Diane May(2011)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젠더 갭 지수와 Schwartz(1992, 1994, 2006)가 규명한 문화 가치를 결합시켜 분석하여 보수주의(conservatism)와 자율성(autonomy) 문화가 젠더 갭의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소임을 밝혔다. Collins·Tisdell(2002)은 교통문화에 주목하여, 교통수요에서 성별이 주요한 영향요소임을 주장했다. 분석 결과 연령별로 여성과 남성의 통행패턴은 통행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문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진행되었다. 소비문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d'Astous, 1990; d'Astous et al. 1990; Scherhoorn et al., 1990)의 결과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구매중독성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조희원(2007)은 지구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많다고 주장한다. 지구화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부장적 권력에 주도되기 때문에 성별 불평등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Ronald Inglehart·Pippa Norris(2000)는 사회 구조적 변수(종교, 나이, 교육 수준), 행동(탈물질주의, 여성운동지원, 낙태지원, 좌우 정치 범위) 등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데에 있어 패턴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Aierie Lee(2008)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전통·현대 가치(복종, 자율, 교육, 존중), 심리적 요인(정치에 대한 관심, 토론)남녀 간의 정치적 차이를 연구하였다. 한편, 최유(2011)는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여성대표할당제에 대해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설명한 뒤, 헌법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이는 여성의 국회의원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연구 중에서 Mammen·Paxson(2000)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1인당 소득 사이에 U자형의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여성의 노동참여가 처음엔 감소하다가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Joshua·Assem(2013)는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젠더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U자 형태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젠더 평등에 대한 영향은 S자 형태와 닮았다고 제시했다. 즉, 경제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첫 번째 단계는 젠더 평등이 증가하고, 두 번째 단계는 젠더 평등이 감소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젠더 평등이 다시 증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밝힌 장형수·김태완(2007)의 연구와도 비슷하다. 임응순·황진영(2013)은 사회경제적 요인(이혼율, 정보통신 발전지수 등)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정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그밖에도 김태홍(2013)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 결과 남성과 여성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중에서 차별로 인한 부분이 각각 13.4%, 30.4%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먼저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다음이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Stephanie Seguino(2000)는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임금불평등이 수출과 투자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여성임금불평등이 투자를 유도할뿐더러 투자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경제발전이 위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의 경제구조도 변하게 되는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의 숙련이 노동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이 주로 경공업과 같은 부문에 고용된다든지 남성보다 저급의 기술교육을 받는 등의 현상에서 기인한다(김병우, 2008). 이처럼 우리나라에 고숙련을 요하는 직종 중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지만 여성친화적이면서 고숙련 직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경제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관련 산업분야에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적으로 정보화와 경제구조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은 ICT 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경제 내 ICT 활용 증대를 통해 각 산업의 ICT 자본심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꾸준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오완근·백용기(2005)는 한국경제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IT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과 장비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 3. 실증분석

#### 3.1 분석변수 및 자료

본 연구는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 젠더 갭 관련 요소에 중점을 두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데에 목적을 갖는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핵심 가설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2010년 이후 5년간 다양한 성장요인들과 더불어 젠더 갭 요소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로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와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보고서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젠더 갭의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서 젠더 갭 지수를 선정하기 위해 분야를 4개로 설정을 한 뒤, 각 분야 별 하위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참여기회 분야에는 여성노동참여율, 남녀임금평등성, (남성대비)여성기대소득, 여성 기업 고위직·관리인비율, 전문·기술직비율 등 5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교육성취도는 여성문맹률, 여성 초등학생 등록률, 여성 중학생 등록률, 여성 고등학생 등록률 등 4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건강·보건은 출생시 성비, 여성기대수명 등 2개의 하위변수를 갖고, 정치적 권한은 여성국회의원 비율, 여성장관 이상급 비율, 여성주지사 이상급 비율 등 3개의 하위변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갭 요인으로 각 분야별로 변수를 하나씩 선정하였다. 성비<sup>3)</sup>, 여성의 노동참여율(%), 여성들의 문맹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각각 여성의 인구, 경제, 교육, 정치 분야를 대표하기 때문에 젠더 갭 요인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의 독립변수로는 국가의 기본 특성을 나타내는 총인구, 1인당 GDP, 도시화율, 실업률을 선정하였고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중소비지출과 더불어 솔로우 모형의 물리적 인프라, 내생적 성장모형의 지식과 인적자본, 신성장이론의 연구분야 투자를 설정하였다. 또한 145개 국가를 지역별로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역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지역더미변수에서 참조기준은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소득성장을 대표하는 지표인 GNI(국민소득) 성장률로 설정하였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국가를 소득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기준이 1인당 GNI였기 때문에 GNI를 소득성장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ICT 개발지수를 설정하였다.

3) 값이 100보다 크면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많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적으면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다.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

변수	내용
독립변수	
국가기본특성	
인구	2010년 총인구
소득	2010년 1인당 GDP(USD)
사회	2010년 도시화율(%)
경제	2010년 실업률(%)
경제성장요인	
로그1인당민간투자	$\log(2010년\ 자본투자(USD)/2010년\ 총인구)$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log(2010년\ 가계소비지출(USD)/2010년\ 총인구)$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log(2010년\ 정부최종소비지출(USD)/2010년\ 총인구)$
인프라	2010년 인프라 점수(1-7)
지식	2010년 지식경제지수(0-12)
인적자본	2010년 인재개발지수(0-1)
연구투자	2010년 GDP 대비 R&D 지출(%)
젠더 갭 요인	
인구	2010년 성비
경제	2010년 여성노동참여율(%)
교육	2010년 여성문맹률(%)
정치	2010년 여성국회의원비율(%)
지역더미변수	
아시아-태평양	한국, 호주 등 24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브라질, 쿠바 등 26개국
중동-북아프리카	카타르, 이집트 등 16개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공, 가나 등 31개국
유럽-중앙아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등 46개국
종속변수	
소득성장	2010년 대비 2015년 GNI 성장률(%)
경제구조 고도화	2010년 ICT 개발 지수

수집된 145개 국가를 지역으로 분류해보면 아시아-태평양 24개국(16.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6개국(17.9%), 중동-북아프리카 16개국(11.0%),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31개국(21.4%), 유럽-중앙아시아 46개국(31.7%), 북아메리카 2개국(1.4%)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하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045 이하) 18개국(12.4%), 중하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046~4,125) 36개국(24.8%), 중상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4,126~12,735) 39개국(26.9%), 상위 그룹(1인당 GNI 기준 USD 12,736 이상) 52개국(35.9%)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2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Table 2. Statistics for Variable

변 수		N	평균값	표준편차
국가기본특 성	인구	145	44,924,413	154,464,243
	소득	145	14,347	19,175
	도시화율	145	58.793%	22.554%
	실업률	145	8.912%	5.044%
경제성장요 인	로그1인당민간투자	145	4.34	1.814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145	8.28	1.252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145	6.95	1.558
	인프라	145	3.531	1.041
	지식경제	145	5.152	2.495
	인적자본	145	.716	.149
	연구투자비율	145	1.243%	1.065%
젠더갭 요인	성비	145	102.091	25.671
	여성노동참여율	145	51.328%	14.167%
	여성문맹률	145	59.864%	11.314%
	여성국회의원비율	145	19.132%	11.134%
지역더미변 수	아시아-태평양	24	.168	.37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6	.182	.387
	중동-북아프리카	16	.112	.3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1	.217	.414
	유럽-중앙아시아	46	.322	.469
GNI 성장률		145	3.501%	5.218%
ICT 개발지수		145	4.961	2.196

### 3.2 분석 결과

아래 Table 3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소득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총인구, 도시화율, 실업률,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 성비, 여성노동참여율, 지역변수로는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유럽-중앙아시아로 나타났다. 경제구조 고도화의 상관관계는 1인당 GDP, 도시화율,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 연구투자, 지역변수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로 나타났다.

소득성장과의 관계는 많은 인구, 낮은 실업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율이 부(-)의 관계인 것은 도시의 성장이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 요인 중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은 소득성장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아직까지 많은 국가들이 성장동력으로서 위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와 여성노동참여율은 소득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였는데 전체인구에서 남성이 많을수록, 여성노동참여가 많을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는 높은 1인당 GDP, 도시화율이 정(+)의 관계를 보여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의 경제구조가 고도화됨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경제성장 요인 중 자본투자, 가계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인프라, 지식경제, 인적자본, 연구투자가 모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젠더 갭 요소 중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변수	소득성장	경제구조 고도화
총인구	.173**	-.068
1인당 GDP	-.060	.751***
도시화율	-.303***	.767***
실업률	-.262***	-.036
자본투자	.077	.183**
가계소비지출	.005	.216***
정부최종소비지출	-.020	.273***
인프라	-.328***	.918***
지식경제	-.413***	.958***
인적자본	-.330***	.948***
연구투자비율	-.116	.684***
성비	.148*	.093
여성노동참여율	.179**	-.025
여성문맹률	-.100	-.022
여성국회의원비율	.009	.154
아시아-태평양	.288***	-.048
라틴아메리카-카리브	.168**	-.074
중동-북아프리카	-.026	.03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90	-.621***
유럽-중앙아시아	-.431***	.628***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아래 Table 4는 소득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모형 추정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국가기본특성, 경제성장요인, 젠더 갭 변수가 포함되어 소득성장의 변량을 74.0% 설명하고 있고, 모형 2는 지역더미변수들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이 74.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에 의한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모든 변수를 입력한 후 제거 기준에 따라 차례로 제거하는 후진선택방법(Backward)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기본특성 중 기준년도의 총인구만이 소득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많은 인구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여, 소득성장에 있어 많은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성장요인 중에서는 자본투자와 정부최종소비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자본투자와 소득성장에는 정(+)의 관계를 보여 자본투자가 많아질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소득성장과 부(-)의 관계를 보여 정부최종소비지출이 적을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경제성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변수들이 지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중에서 성비와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의 경우 부(-)의 관계를 보였다. 성비가 높을수록 즉, 여성보다 남성의 숫자가 많을수록 소득성장이 높아졌는데 주로 남성의 소득이 여성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여성문맹률은 낮을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성장에서 여성의 높은 정치참여와 교육수준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형 2에서 지역별 성장격차를 규명할 결과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북아메리카에 비해 큰 소득의 성장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Estimation of model: Income Growth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t	$\beta$	t	$\beta$	t
상수	-	-0.005	-	-0.115	-	4.049
인구	.384	2.321**	.366	1.931*	.517	4.918***
1인당 GDP	-.212	-.802	-.243	-.849		
도시화율	-.018	-.120	.007	.039		
실업률	-.026	-.165	-.020	-.109		
로그1인당자본투자	.593	2.356**	.581	1.900*	.655	3.744***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199	.891	.271	1.031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1.089	-2.247**	-.995	-1.821*	-.955	-5.231***
인프라	-.157	-.352	-.160	-.305		
지식경제	-.222	-.469	-.316	-.561		
인적자본	.418	.935	.369	.758		
연구투자비율	.178	.799	.137	.544		
성비	.347	2.309**	.363	1.645	.242	2.180**
여성노동참여율	.165	1.125	.163	1.014		
여성문맹률	-.409	-2.852***	-.450	-2.651**	-.431	-4.038**
여성국회의원비율	.299	2.182**	.377	1.9852*	.241	2.060***
아시아-태평양			.019	.104*		
라틴아메리카-카리브			-.140	-.608		
중동-북아프리카			-.055	-.24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1	-.437		
유럽-중앙아시아			.054	.271		
$R^2$	.740		.746		.680	
수정된 $R^2$	.563		.505		.619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아래 Table 5은 두 번째 종속변수인 경제구조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회귀모형 추정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을 살펴보면 국가기본특성, 경제성장요인, 젠더 갭 변수가 포함되어 경제구조 고도화의 변량을 91.5% 설명하고 있고, 모형 2는 지역더미변수들이 추가되면서 경제구조 고도화의 변량을 소폭 상승된 93.1%만큼 설명하여 설명력이 매우 높다. 모형 3은 모든 변수를 입력한 후 제거 기준에 따라 차례로 제거하는 후진선택방법(Backward)으로 구성한 모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기본특성 중 기준년의 총인구, 1인당 GDP가 경제구조 고도화에 부(-)의 관계를 보였다. 경제성장요인 중에서는 자본투자와 인프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두 변수 모두 소득성장에 정(+)의 관계를 보여 자본투자, 인프라가 많아질수록 소득성장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경제성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역시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젠더 갭 요소 중에서 성비, 여성노동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두 변수 모두 정(+)의 관계를 보였다. 성비가 높을수록 경제구조의 고도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노동참여율 역시 높을수록 경제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경제구조 고도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 성장격차를 규명한 결과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북아메리카에 비해 큰 경제구조 고도화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5. Estimation of model: Economic Structural Improvement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t	$\beta$	t	$\beta$	t
상수	-	-2.863	-	-3.011	-	-4.660
인구	-.147	-1.554	-.159	-1.602	-.156	-2.532**
1인당 GDP	-.260	-1.712	-.307	-2.053*	-.289	-2.445**
도시화율	.042	.498	.080	.924		
실업률	.096	1.064	.078	.817		
로그1인당자본투자	-.297	-2.059*	-.236	-1.478	.443	3.340***
로그1인당가계소비지출	-.059	-.462	.019	.138		
로그1인당정부최종소비지출	.512	1.842*	.587	2.061*		
인프라	.792	3.086***	.771	2.817***	.620	4.864***
지식경제	-.077	-.283	-.268	-.912		
인적자본	.245	.956	.205	.808		
연구투자비율	-.096	-.753	-.120	-.914		
성비	.120	1.397	.195	1.697	.191	2.915***
여성노동참여율	.253	3.012***	.227	2.714**	.177	2.844***
여성문맹률	.073	.883	-.003	-.029		
여성국회의원비율	-.110	-1.403	.008	.081		
아시아-태평양			-.092	-.96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36	-1.960*		
중동-북아프리카			-.165	-1.39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2	-1.387		
유럽-중앙아시아			.198	1.858*	.278	4.128***
$R^2$	.915		.931		.903	
수정된 $R^2$	.856		.865		.880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4.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젠더 갭 요소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들 중 성비는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갭의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비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문화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2017년 4월 일본 넷케이아시아리뷰는 아시아 지역에서 극심한 성비불균형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유교문화와 남아선호사상, 출산 전 성별검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분석에 성비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노동참여율이 소득성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노동참여를 더욱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의 노동참여가 27%에 불과한 인도의 상황에서 많은 연구기관들은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노동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여성의 노동참여는 경제구조 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결과는 장형수·김태완(2007)의 연구에서 여성노동참여가 불평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여성문맹률 역시 소득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수준과 경제성장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이 있다는 주장과 상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와는 유의미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차별 해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구조 고도화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여성국회의원비율이 현실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국회의원들이 주로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과 활동분야가 경제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분석 결과는 많은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우선, 여성노동참여율,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뒤, 이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5년, 10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수립은 필수적인데, 전체적인 여성노동참여율 제고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여성노동력이 증원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숙련 노동 분야에 속해 있는 많은 여성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계 대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는 여성교육과도 연관이 있는데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해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어져 경제성장과 선순환 관계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wage gap) 역시 여성노동참여율 제고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같은 조건의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격차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임금을 줄여야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물론 능력,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아닌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해당대상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이유에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서 우리나라는 145개 국가 중에서 젠더 갭 순위가 115위를 기록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 보건 분야는 준수했지만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치적 권한 부분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국회의원의 비중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인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유엔 권고수준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의 대표성확대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 여성할당제라는 법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여성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성할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발전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이룩하여 현재 IT 강국이라는 명예를 갖을지라도 앞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 제고 없이 4차 산업혁명 산업분야는 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 역시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착안하여 젠더 갭(성별 격차) 요소에 주목하여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젠더 갭의 요소로 성비, 여성노동참여율,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 등 4개로 설정하였고, 국가기본특성, 기타경제성장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소득성장을 나타내는 2010년 대비 2015년의 GNI 성장률, 경제구조 고도화를 나타내는 ICT 개발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성비가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 모두에 유의미하였고 여성문맹률,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젠더 갭이 큰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경제구조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불필요한 차이 혹은 차별을 타파하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 국가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 다르지만 현재는 젠더 갭 해소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측해보면 적어도 50년 이상 진행될 것인데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갭과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관계를 규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에

대한 처우, 정책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국가의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문화, 사람들의 인식 측면은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권에서 남아선호사상, 이슬람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시되어 왔던 문화, 반대로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비교해 전혀 뒤쳐지지 않는 모계사회 등 각 국이 처한 문화적 특수성을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좀 더 높은 설명력을 위해 변수들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향후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가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 References

- Aierie Lee (2008), "Gender Differences in Values and Political Orientations: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Gender Studies and Policy Review」, 2008(1): 55-72.
- Cho Heewon (2007), "Globalization and gender inequality in light of Feminism,"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4(2): 1-20.
- Choi You (2011),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for discrimination in the political Life ", 「Chung-Ang Law」, 13(1), 9-51.
- C. Nobis and B. Lenz (2005), "Gender Differences in Travel Patterns: Role of Employment Status and Household Structure", 「Research on Women's Issues in Transportation」, 2(35): 114-123.
- d'Astous A. (1990), "An Inquiry into the Compulsive Side of Normal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Policy」, 13(1): 15-31.
- d'Astous A, J. Maltais and C. Roberge (1990), "Compulsive Buying Tendencies of Adolescent Consume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1), 306-320.
- D. Collins and C. Tisdell (2002), "Gender and Differences in Travel Life Cycl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41(2): 133-143.
- Gwak HyunJu·Choi EunYoung (2015), "Influence factor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The Women's Studies」 88(1): 429-459.
- Hwang Jinyoung (2013),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Labor Market Instability and Total Fertility Rate: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15(1): 81-105.
- H. Yeganeh and D. May (2011), "Cultural Values and gender gap: a cross-national analysis",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6(2): 106-121.
- J. Eastin and A. Prakash (2013), "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Is There a Gender Kuznets Curve?", 「WORLD POLITICS」, 65(1): 156-186.
- Kim Byungwoo (2008), "Innovation, Wome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5(1): 23-49.
- Kim Taehong (2013), "The Decomposition of Wage Gap due to Gender and Employment Pattern", 「The Women's Studies」, 84: 31-61.
- Kim Youngmi (2011), "Welfare State and Gender Politics", 「Welfare Trend」 153: 10-14.
- L. Guiso et al. (2008), "Culture, Gender, and Math", 「Science」, 320(5880): 1164-1165.
- Lim Eungsoon·Hwang Jinyoung (2013), "Empirical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Socioeconomic Factor Based on Cross-section Data", 「Journal of Budget and Policy」, 2(1): 167-186.
- M. Kristin and P. Christina (2000), "Women's 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4): 141-164.
- NIKKEI ASIAN REVIEW (2017), 「Asia's gender imbalance is bad news for growth」

- Oh Wankeun·Baek Ehunggi (2005), "The Effect of IT industry Development on the Change of Economic Structur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11(2): 1-63.
- Park HyeJin (2012), "A Critical Study on the Gender Trouble in the Criminal Law - Focused on the Rape -",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4(1): 37-72.
- P. M. Romer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5): 1002-1037.
- (1992), "Two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Using Ideas and Producing Idea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6(1): 63-91.
- (1993), "Idea gaps and object gaps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543-573.
- R. E. Lucas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R. Inglehart and P.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 R. M. Solow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 Scherhorn G, (1990), "The Addictive Trait in Buying Behaviour", 「Journal of Consumer Policy」, 13(1): 33-51.
- S. D. Beauvoir (1949), "Le Deuxième Sexe"
- S. Klasen and F. Lammana (2009), "The Impact of Gender Inequality in Education and Employment on Economic Growth: New Evidence for a Panel of Countries", 「Feminist Economics」, 15(3), 91-132.
- S. Seguino (2000), "Gender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World Development」, 28(7): 1211-1230.
- Zang Hyungsoo·Kim Taewan (2007), "Effects of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Growth and Inequal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7(2): 3-24.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6),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3), 「An Analysis on ICT Industrial Structure and Inter-Industry Effects」
- Korea Labor Institute (2003), 「Female Occupational Choice and Structure of Employ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3),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Overcoming the constraints」
- Wikigender, <http://www.wikigender.org/>
-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5」